

▶ 종목 정보

상장 예정일	미정
기업 가치	1,300억 달러 (26년 7월)
매출액	미공개
국가	US
산업	Aerospace & Defense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블루 오리진 (미국 비상장)

창사 첫 외부 자금 조달 추진

- 블루 오리진이 창사 첫 외부 자금 조달 추진
- 조달 규모는 100억 달러로, 산정 기업 가치는 1,300억 달러
- 발사 시설 보수 및 연말까지 비행 재개가 최대 관건

WHAT'S THE STORY?

투자 라운드 세부 내용: 이번 라운드를 통해 블루 오리진은 1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 기업 가치는 1,300억 달러로 산정. 100억 달러 중 40억 달러는 Coatue Management가, 20억 달러는 베이조스가 출자하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구조. 특히, 2000년 창사 이후 26년 만에 진행되는 첫 외부 자금 조달이라는 점에 주목 필요. 이는 현재까지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의 개인 자금에 의존해오던 구조이기 때문.

자금 조달 목적: 이번 투자 라운드는 스페이스X와의 격차 축소를 위한 자금 조달로 풀이. 경쟁사인 스페이스X는 발사체 기술, 발사 인프라 우위에 더해 스타링크라는 압도적 캐시카우까지 보유. 즉, 블루 오리진은 발사 빈도 확대, 발사 인프라 확충에 이어 자체 위성 네트워크인 테라웨이브 구축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

기업 가치 1,300억 달러?: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블루 오리진은 기업 가치 1,300억 달러를 인정받은 상황.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2조 달러와 비교 시 기업 가치는 스페이스X의 6.5% 수준. 블루 오리진의 매출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밸류 비교는 불가능하나, 상업 발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스타링크와 같은 캐시카우도 없기 때문에 P/S 밸류 기준 스페이스X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은 향후 발사 서비스 안정화에 따른 상업 발사 매출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연내 비행 재개가 최대 관건: 앞서 언급했듯이, 블루 오리진은 현재 순수 발사체 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즉, 뉴 글렌 발사체의 상업 발사 빈도 확대가 실적 개선의 최대 관건인 상황. 그러나, 블루 오리진이 보유한 유일한 발사 시설이 5월 중 파손됨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적인 발사가 불가능한 상태. 경영진은 연말까지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스페이스X가 과거 발사 시설 파손 이후 보수에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연내 비행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7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